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인 문학박사(오스카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일)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알훈섬, 이르쿠츠크    문의:02-730-2270

## 7인승 수입 SUV가 4000만원대라고?

### New 푸조 5008 공식 출시

판매가 4290만원부터...공격적 가격책정 고속도로 기준 연비 13.1km/L 동급 최고 유로 NCAP 충돌테스트 최고 안전 등급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SUV 인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7인승 수입 SUV로는 유일하게 4000만원대라는 공격적인 가격을 책정한 푸조의 'New 푸조 5008(이하 푸조 5008)'이 21일 공식 출시됐다.

푸조 5008은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푸조가 국내 시장에 최초로 선보이는 7인승 SUV 모델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기아 차 쏘렌토, 현대차 싼타페, 르노삼성 QM6 등의 중형 SUV는 물론, 쌍용차 G4 렉스턴이나 기아차 모하비 등의 대형 SUV들과도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 중·대형 SUV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다. 출시 전 일주일만에 200대가 사전 예약되며 흥행 가능성을 입증했다. 푸조 5008의 가격은 알튀르 모



7인승 수입 SUV 'New 푸조 5008'의 운전석(왼쪽)은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적재 공간(오른쪽)도 3열 시트를 탈거하고 2열 시트까지 접을 경우 최대 2150L를 확보할 수 있다. 사진제공 | 푸조

텔이 4290만원, GT 라인은 4650만원이다.

### ●활용성 높은 실내 공간 구성

가족 고객을 겨냥한 7인승 SUV답게 일단 실내 공간을 대폭 키운 것이 특징이다. 푸조 3008 SUV 대비 휠 베이스는 165mm 늘어난 2840mm, 전체 길이는 190mm 늘어난 4640mm이다. 특히 2열 무릎 공간도 60mm 늘려 여유 공간을 확보했다. 실내 공간의 활용성도 높다. 2열 시트는 등

받이 각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으며 1:1:1로 폴딩되어 탈 부착이 가능한 3열 시트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3열 시트를 탈거하고 2열 시트까지 접을 경우 최대 2150L의 동급 최고 수준의 적재 공간이 확보된다. 조수석 시트까지 접으면 최대 3.2m 길이의 짐까지 실을 수 있어 캠핑, 레저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

### ●복합연비 12.7km/L, 국내 7인승 SUV 중에서는 상위급

푸조 5008에는 1.6리터 BlueHDi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 'EAT6'가 적용되어 최대 출력 120마력, 최대 토크 30.61kg.m의 파워를 낸다. 공인 복합 연비는 12.7km/L(고속 13.1 km/L, 도심 12.3km/L)로 국내 7인승 SUV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눈길을 비롯해 평지, 진흙, 모래, ESP 오프 등 다섯 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하는 어드밴스드 그립컨트롤과 내리막길 주행 시 속도와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힐 어시스트 디센트 컨트롤 기능도 갖추고 있다.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인 유로 NCAP 충돌테스트에서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했고, 2열 시트 좌석에는 3개의 카시트 장치가 가능해 다자녀를 둔 가족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New 푸조 5008 ▶

## 패션업계 O2O 도입, 위기탈출 나선다

온라인서 추천받고 매장서 확인 후 픽업 로가디스·LF몰·코오롱FnC 맞춤형서비스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타격이 심한 위기의 패션업계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통해 새 소비층 공략에 나섰다.

모바일과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고객을 겨냥해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이들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끌어내는 전략이다. 온라인 구매 성향이 높아지는 반면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채널 간 구매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로가디스는 온라인으로 재킷을 추천하고, 오프라인으로 상품 수령하는 '스마트 슈트 파인더' 시스템을 도입했다. 코오롱FnC는 오프라인 매장 '코오롱몰 오픈센터'를 통해 온라인과 동일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제공 | 삼성물산 패션부문·코오롱FnC

LF몰은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과 실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 경험의 장점이 결합된 신개념 슈트 맞춤 서비스 'e-테일러'를 선보였다. LF 남성복 브랜드 닥스남성, 마에스트로, 질스튜디오뉴욕 등이 서비스 대상이다. 테일러가 직접 방문해 신체 사이즈 측정 및 상담을 한 후 완성된 슈트는 고객에게 전달한다. 최근에는 뱀을 개조한 'e-테일러 카'를 준비해 장소에 불편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코오롱FnC는 오프라인 매장 '코오롱몰 오픈센터'를 통해 온라인몰에서 제공받을 수 있



삼성물산 패션부문 로가디스는 온라인으로 재킷을 추천하고, 오프라인으로 상품 수령하는 '스마트 슈트 파인더' 시스템을 도입했다. 코오롱FnC는 오프라인 매장 '코오롱몰 오픈센터'를 통해 온라인과 동일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제공 | 삼성물산 패션부문·코오롱FnC

는 할인 등의 혜택 및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한다.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매장에서 확인 후 픽업하는 '옴니 픽'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세정 온라인쇼핑몰 '더휴'의 '쇼윈도 커머스'는 온라인 판매의 시각적대였던 가두 대리점의 공식적인 온라인 판매 채널로, 오프라인 매장 점주와의 상생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또 유니클로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구매한 상품을 편의점에서 받고 반품할 수 있는 '스마트픽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더 플라자, 객실쇼핑 '더 플라자 숍' 론칭**  
서울 태평로 호텔 더 플라자는 호텔 업계 최초로 객실 쇼핑 플랫폼 서비스 '더 플라자 숍'을 론칭했다. 기존 객실 내 미니바 형태로 음료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 호텔 전문가들이 선정한 상품을 브로셔 형태로 구성해 고객이 객실에서 주문하면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다. 더 플라자 PB상품, 한국 전통

상품, 라이프스타일 상품, 어린이 상품, 한국 식품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 약 20여종의 상품으로 구성했다. 고객의 피드백 조사를 통해 추후 상품군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말 신규 오픈하는 더 플라자 웹사이트(PC/모바일) 내 쇼핑몰 운영, 해외 유명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 추진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 경제현장.jpg

###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성탄 알리는 기적 소리



서울 남산 밀레니엄서울 힐튼의 연말 명물 이벤트인 '크리스마스 열차'가 올해도 어김없이 12월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로 22년째인 '크리스마스 열차'는 귀여운 모양의 미니 열차 75여 대와 알프스를 모델로 꾸민 이국적인 조형물로 이루어져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포토 포인트로도 인기 높은 '크리스마스 열차'는 내년 1월21일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 허인 KB국민은행장 "역동적 혁신과 신뢰 회복"

### 철저한 고객 중심 전략 리딩뱅크 목표 "노조는 경영 파트너" 소통 진정성 강조

허인(57·사진) 신임 KB국민은행장이 역동적 혁신과 노조와의 신뢰 회복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다.

허 행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의 모든 제도와 프로세스를 고객에 맞춰 바꾸겠다"며 "철저한 고객 중심 전략으로 리딩뱅크가 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도 굳어진 은행 영업시간을 파괴하겠다고 했다. 또 종이 대신 전자서투로 편의성을 높인 디지털창구를 늘려 효율성을 꾀할 방침이다.

조직의 단합을 위한 협업 문화도 내세웠는데, 은행·증권·보험 등 계열사 간 소통과 자발적 협업의 시너지가 복합점포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는



"은행 안의 또다른 은행인 디지털뱅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핵심전략이자 미래성장동력"이라며 "앞서 선보인 생활금융플랫폼 '리브', '리브메이트', 부동산금융 '리브온'에 안주하지 말고 고객이 먼저 찾아올 수 있는 디지털뱅크 서비스를 선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KB금융지주의 노사갈등 풀이 깊어진 상황에서 노조와의 신뢰 회복도 강조했다. 그는 "노조는 경영의 한 파트너"라며 "서로 다른 부분을 진정성 있게 풀어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신용은행 재직 시절 노조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허 행장은 이날 취임식 직후 박홍배 노조위원장과 만나는 등 노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는 "노조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데 우선 순위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풀어가길"이라고 덧붙였다.    정정욱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1일

코스피지수	2530.70	▲	+3.03
코스닥지수	789.38	▲	+4.06
日 닷케이 지수	2만2416.48	▲	+154.72
중 상하이 종합	3410.50	▲	+18.10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16		0
환율 (원·달러)	1095.00	▼	-4.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4982.81	▼	-666.78

## 오늘의 얼굴

### 홍준학 장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제 모든 역량을 쏟아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홍준학(사진)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문재인 대통령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인사말 전했다. 홍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국민의 뜻에 따라 출범했다는 점에서 저 스스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무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했다. 홍 장관이 처리해야 할 시급한 해결과제로는 16.4%라는 역대 최대 인상을 기록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논쟁, 혁신성장 관련 정책 정비, 포함 지원 피해 지원 등이 꼽힌다.

## 비즈 TALK TALK

- "한국 경제가 풀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환위기 극복 20년 특별 대담'에 참석해 한국 경제 위기 재연 가능성에 대해 말하며)
-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곧 LG화학의 경쟁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21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대주코레스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피앤이솔루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 "한미 FTA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조성대 무역협회 미주실 차장,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투자가 확대되면서 미국 내 한국 투자기업의 고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 데이터 경제

### 3분기 해외서 급은 카드값 5조원 '사상 최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급은 카드사용액이 지난 3분기 5조원에 근접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3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 7~9월 3개월 동안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카드 결제금액은 43억8700만달러(4조 9682억원)로 2분기(41억8300만달러)보다 4.9% 증가했다. 올 1분기(40억2300만달러)에 이어 3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해외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3분기 내국인 출국자수는 70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5만명)보다 14.8%(96만명) 급증했다. 달러화 대비 원화가 강세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 추이

